ISSN 2092 - 8661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6 | No.201





대외 여건 동향

세계 경제 | 국내외 금융

국내 경제·산업 동향

국내 경기 | 소비·고용 | 투자 | 산업생산 | 물가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자동차 | 조선 | 일반기계 | 철강 | 정유 | 석유화학 | 섬유 | 가전 |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슈 포커스

최근 세계 스마트폰산업 동향 분석

KIET 산업연구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6 | No.201

KIET 산업연구원

2026. 6 | No. 201

차 례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내외 금융 ····· 9

2. 국내 경제·산업 동향 ····· 15
(1) 국내 경기 ····· 15
(2) 소비·고용 ····· 20
(3) 투자 ····· 22
(4) 산업생산 ····· 25
(5) 물가 ····· 27
(6) 수출입 ····· 28

3. 주요 산업별 동향 ····· 35
(1) 자동차 ····· 35
(2) 조선 ····· 36
(3) 일반기계 ····· 38
(4) 철강 ····· 39
(5) 정유 ····· 41
(6) 석유화학 ····· 42
(7) 섬유 ····· 43

(8) 가전 ····· 45
(9) 무선통신기기 ····· 46
(10) 반도체 ····· 48
(11) 디스플레이 ····· 49

4. 이슈 포커스 ····· 51
(1) 최근 세계 스마트폰산업 동향 분석 ····· 51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6 I No. 201

발행인 권남훈
편집인 이두희
발행일 2026년 6월 22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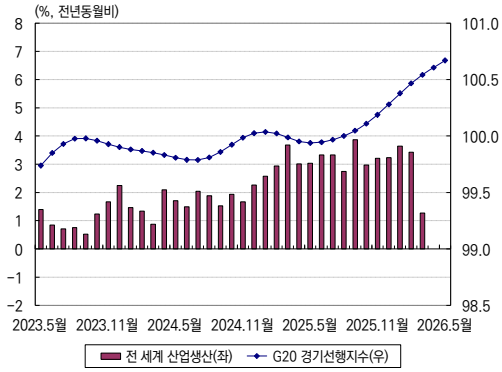
□ 전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물량, 연초(1~2월) 견조한 증가세 이후 3월에 급속히 둔화

● (세계 경제) 세계 실물경기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선행지수의 지난 2월부터 5월 현재까지의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실물지표는 3월에 크게 둔화

- 전 세계 산업생산이 2월까지도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3월에는 특히 신흥권의 급격한 둔화로 2024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전년동월비 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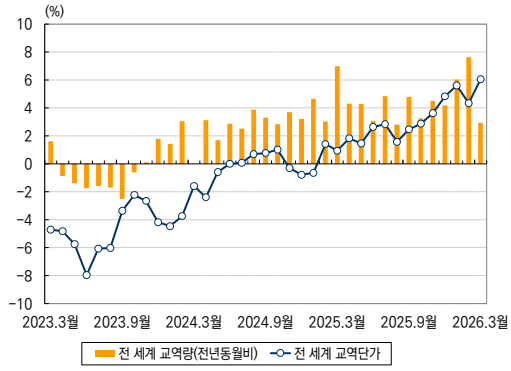
세계 주요 경제지표

(a) 경기지표 추이



자료: OECD, CPB.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C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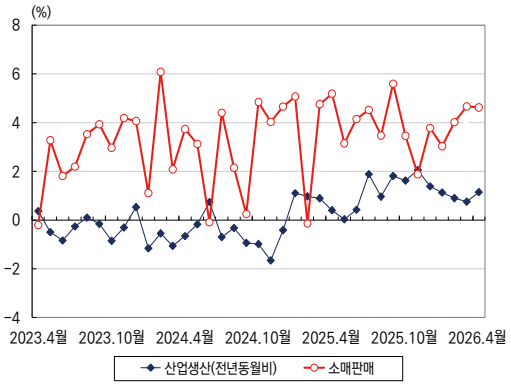
- 전 세계 교역물량도 2월에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인 전년동월비 7.6% 증가하였다가, 3월에는 2025년 8월 이후 최저치인 2.9% 증가에 그치는 등 현저히 둔화
- 전 세계 교역단가 역시 지난해부터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1월에 전년동월비 5.6% 상승했고, 2월에 일시 둔화를 보인 이후 3월에 6.0% 상승하는 등 인플레 압력 가중 시사

● (미국 경제) 4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미약하나마 동반 증가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입의 큰 폭 증가(전년동월비 9.0%)로 적자 확대

- 고용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지표가 중동 전쟁 이후 유가 상승 여파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억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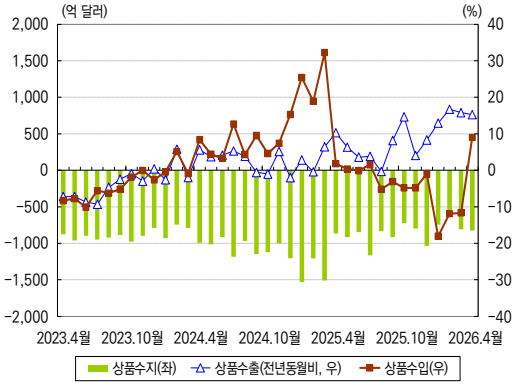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미국 연준(FRB), 미국 상무부(Census).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C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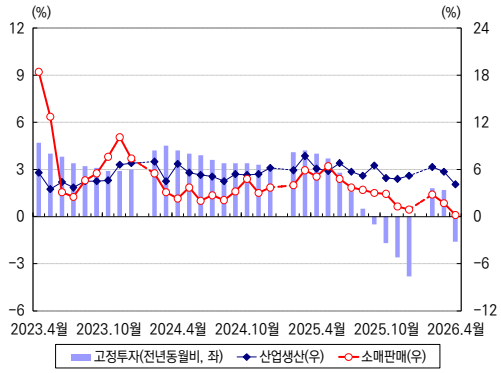
● (중국 경제) 4월 생산과 소비가 증가율이 더욱 낮아지고, 투자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과 함께 흑자 기조 지속

- 올해 상반기 내수지표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나, 물가지표 상승세(5월 생산자물가 3.9% 상승)가 나타나면서 인플레 향방에도 주목

● (일본 경제) 4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3개월 만에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14.8%)을 유지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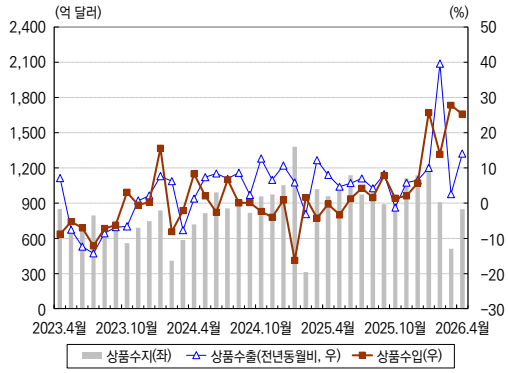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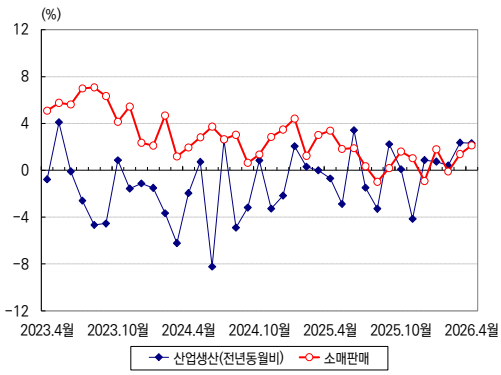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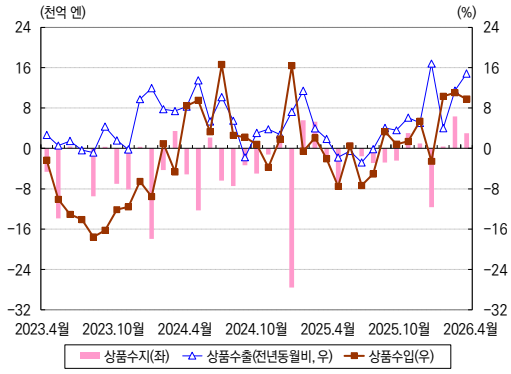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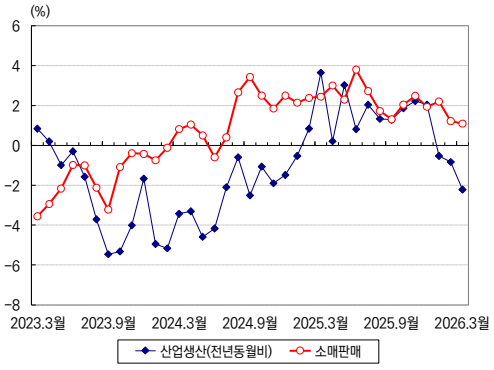
- 지난 1분기 설비투자(전기비 -0.7%)를 제외하고 민간소비(0.3%)와 공공투자(1.5%), 수출(1.8%) 등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기비 0.5%의 성장률(전년동기비 0.4%) 기록

● (유로 경제) 지난 3월 역내 생산과 소비 등 내수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을 보인 데 이어,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5.5%)와 수입 증가(4.4%)로 인해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축소

- 중동 전쟁 영향으로 역내 물가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3년 만에 금리 인상(25bp)을 단행한 가운데 올해 역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소폭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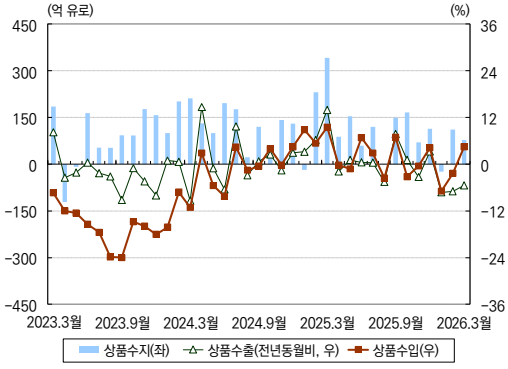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유로통계기구(Eurostat).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유로통계기구(Eurostat).

세계 주요국의 실물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전체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3]
미국	실질GDP[1]	2.8	2.1	2.3 (4.4)	2.0 (0.5)	2.7 (1.6)				
	산업생산	-0.7	1.1	1.5	1.7	0.9	0.9	0.8	1.1	0.7
	소매판매	3.0	3.7	4.5	3.1	3.9	4.0	4.7	4.6	0.5
	무역수지[2]	-12,009	-12,346	-2,914	-2,557	-2,135	-584	-807	-825	-830
중국	실질GDP	5.0	5.0	4.8	4.5	5.0				
	산업생산	5.7	5.9	5.8	5.0	5.9	6.3	5.7	4.1	-
	소매판매	3.5	3.8	3.4	1.7	2.1	2.8	1.7	0.2	-
	고정투자	3.2	-3.8	-0.5	-3.8	1.7	1.8	1.7	-1.6	-
	무역수지(억 달러)	9,926	11,851	2,879	3,137	2,643	908	511	848	-
일본	실질GDP	-0.2	1.1	0.5	0.3	0.4				
	광공업생산	-2.6	-0.3	-0.8	-1.0	1.2	0.4	2.4	2.3	0.8
	소매판매	2.5	1.4	-0.1	0.5	1.1	-0.1	1.4	2.1	1.3
	무역수지[2]	-56,284	-29,296	-7,281	1,578	-4,980	366	6,312	2,993	2,364
유로존	실질GDP	0.9	1.4	1.4	1.2	0.3				
	산업생산	-3.0	1.6	1.6	2.0	-1.2	-0.8	-2.2	-	0.3
	소매판매	1.2	2.3	1.9	2.1	1.5	1.2	1.1	-	0.0
	무역수지[2]	1,590	1,474	269	349	165	111	78	-	35

자료: 미국 연준·상무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통계기구(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기비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억 기준(비계절조정치), 3) 계절조정치 기준(무역수지는 규모).

(2) 국내외 금융

1) 금리·환율

□ 5월 미국과 국내 금리, 인플레 우려로 상승했으나 미국·이란 협상 기대로 상승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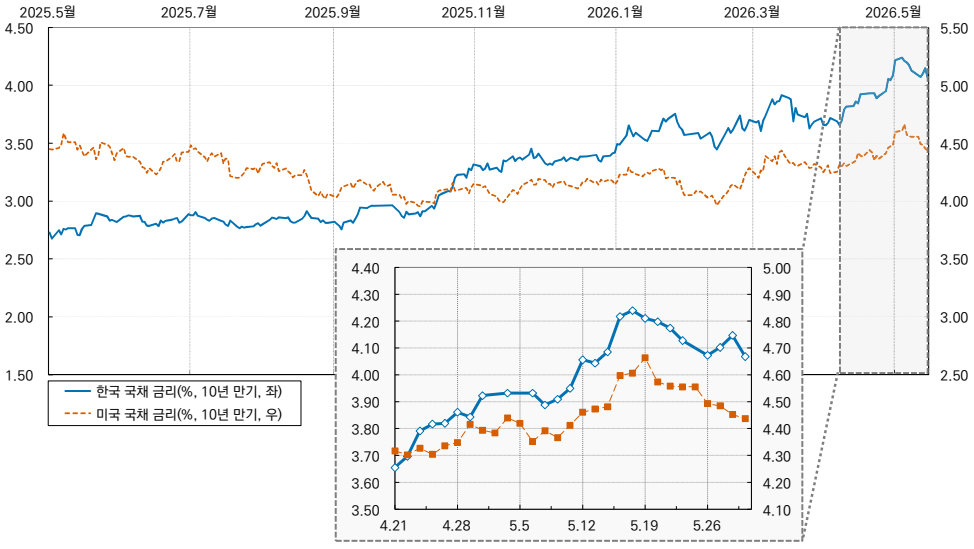
● (미 국채 금리(10년 만기))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등세를 보인 이후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 및 유가 안정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후 미국·이란 협상 교착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적 등락

- 5월 말 미 국채금리(10년)는 4.44%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

● (국내 국고채 금리(10년 만기))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선물 매도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 및 유가 안정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후 협상 불확실성 재부각 등으로 제한적 등락

- 5월 말 국내 국고채 금리(10년)는 4.07%로, 전월 말 대비 0.15%포인트 상승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월별 국내외 금리 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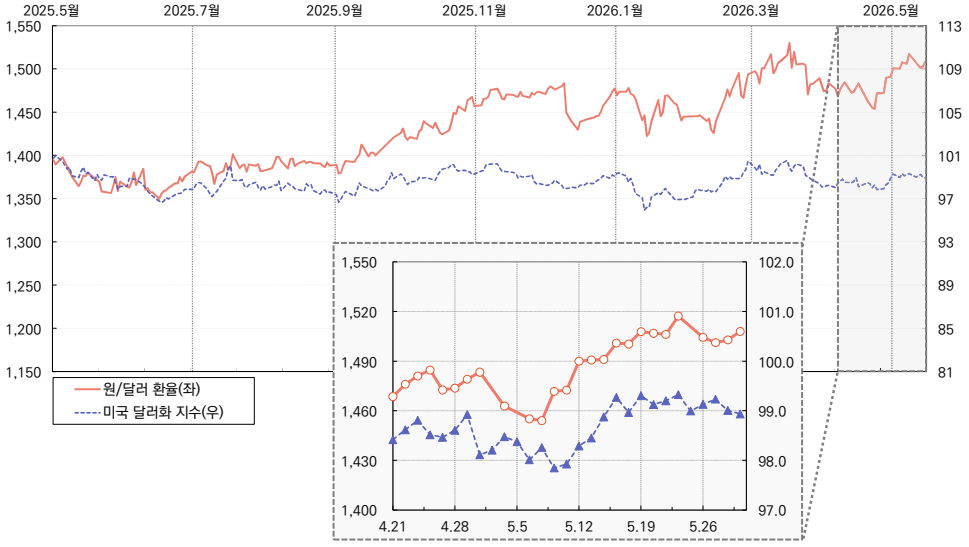
	2025				2026				
	연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한국 국고채(3년)	2.57	2.72	2.99	2.95	3.14	3.04	3.55	3.60	3.73
한국 국고채(10년)	2.89	3.06	3.34	3.39	3.61	3.45	3.88	3.92	4.07
미국 국채(10년)	4.23	4.10	4.02	4.16	4.26	3.96	4.32	4.39	4.44
일본 국채(10년)	1.56	1.66	1.80	2.07	2.25	2.11	2.35	2.52	2.66
독일 국채(10년)	2.62	2.64	2.69	2.85	2.84	2.65	3.01	3.03	2.93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주: 월별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 5월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 미국·이란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세 지속

● (달러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및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후 협상 불확실성 재부각에 따른 중동 긴장 재고조 등으로 소폭 반등하며 등락 반복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월별 주요 환율 동향

	2025				2026				
	연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러화 지수	100.8	99.7	99.5	98.3	97.1	97.6	99.8	98.1	98.9
달러/유로	1.13	1.15	1.16	1.18	1.19	1.18	1.16	1.17	1.17
엔/달러	150.0	154.0	156.2	156.7	154.8	156.1	158.7	156.6	159.3
위안/달러	7.17	7.12	7.08	6.99	6.95	6.86	6.90	6.83	6.77
원/달러	1,421.2	1,424.4	1,470.6	1,439.0	1,439.5	1,439.7	1,530.1	1,483.3	1,507.9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주: 월별 환율은 월말 종가 기준.

- 5월 말 엔/달러 환율은 159.3으로, 전월 말 대비 1.72% 상승, 달러/유로 환율은 1.17로 보합

● (원/달러 환율)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및 외국인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 및 국내 업체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이후 협상 중단 우려 재부각 등으로 소폭 반등하며 제한적 등락

- 5월 말 원/달러 환율은 1,507.9로, 전월 말 대비 1.7% 상승

2) 유가·원자재

□ 4월 국제유가,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 지속 등 불확실성이 교차하며 등락 반복

● (국제유가) 5월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점진적 재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협상 중단 우려 재부각 및 이란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반등하며 등락을 반복

- (상승 요인) (5월 초)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 지속 및 UAE 피격, 호르무즈 물류 보호를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 보도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5월 중순) 미국·이란 양측의 협상안 상호 거부 의사 표명으로 종전 합의 기대감 하락,

오만 인근 해역 선박 피격·침몰 등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 (5월 3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계획 보류 발표 및 협상 교착 지속, 미 원유 재고 대폭 감소 등으로 상승 압력 지속

- (하방 요인) (5월 초) 미국·이란 휴전 합의 프레임워크 논의 진전 기대로 유가 하락. (5월 2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확대 및 선박 통항 점진적 재개 소식으로 상승폭 제한. (5월 4주)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잠정 합의 보도 및 호르무즈 해협 물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유가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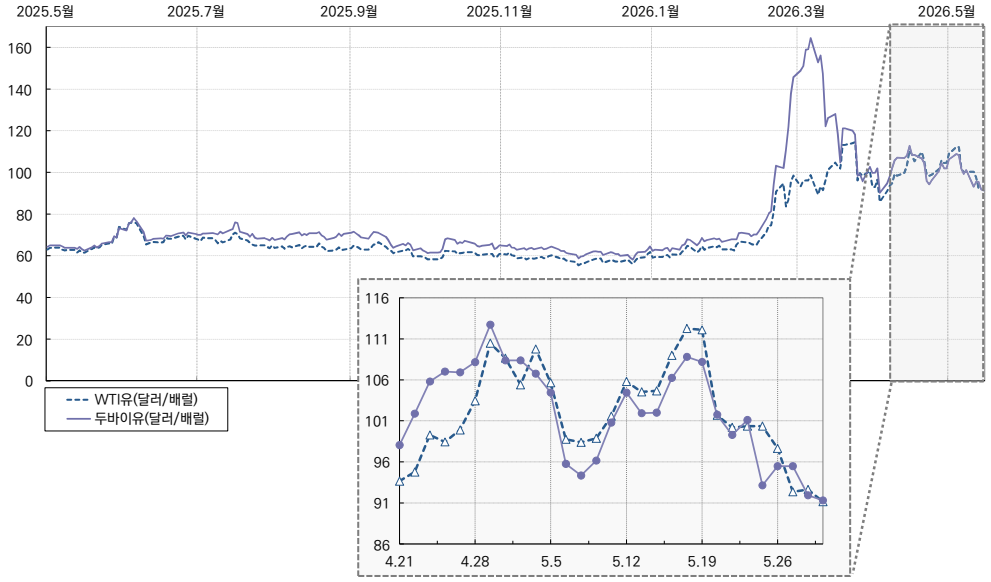
월별 국제유가 동향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연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WTI	65.47	60.84	60.04	58.00	59.88	64.44	91.38	100.90	102.05
두바이	69.36	64.60	64.36	61.79	62.73	68.51	126.71	105.30	100.36
브렌트	68.29	63.98	63.69	61.77	64.59	69.41	99.40	102.81	103.84

자료: Datastream.

국제유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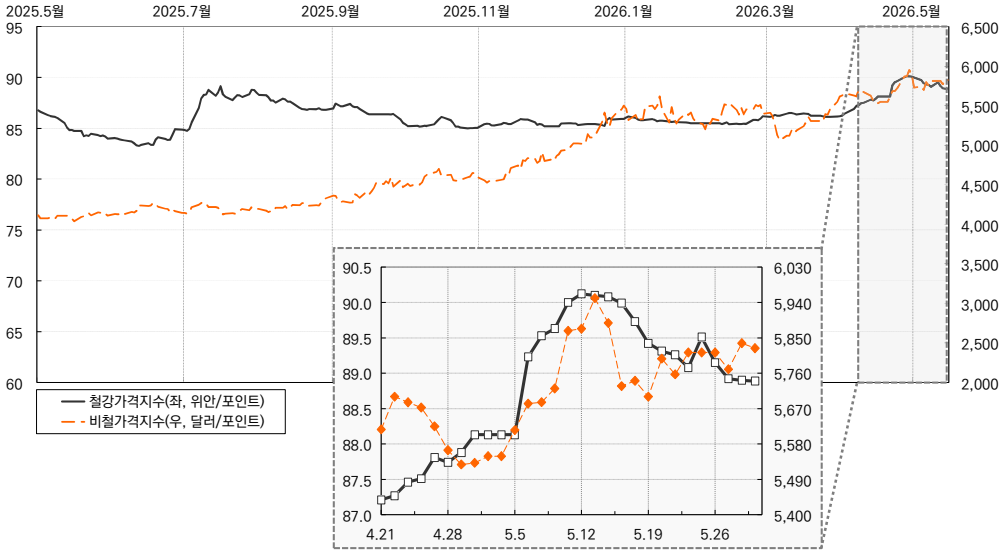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 5월 원자재 가격, 미국·이란 협상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공급 차질 우려 속 등락 반복

- (비철금속)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 지속 등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은 글로벌 메이저 광산 공급 차질 및 중국 수요 견조로 상승세를 보이다 미국 관세 우려 재부상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니켈은 인도네시아 채굴쿼터 감축과 호르무즈 황 공급 차질로 공급 부족 전환 우려가 부각되며 등락 반복
- (철강) 유연탄은 인도 폭염 및 중동발 LNG 대체 수요 급증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란 협상 진전에 따른 LNG 공급 복구 기대로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였으며, 철광석은 중국 경기지표 부진과 항만 재고 과잉으로 약세를 보이다 월말 제철소 고로 가동 유지로 낙폭 일부 제한
- (희소광물) 리튬은 중국 주요 제조업체의 호가 인상과 공급 축소 우려로 월초 상승세를 보이다 생산 재개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코발트는 DR콩고 공급 불확실성 확대에도 거래 부진으로 보합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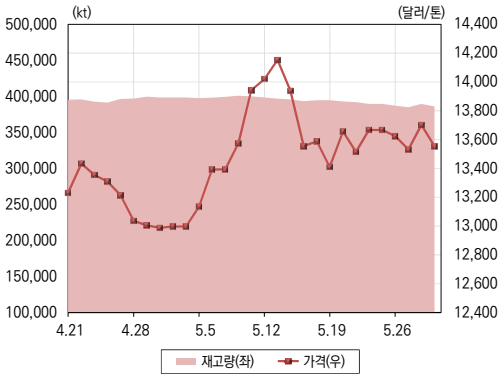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자료: Datastream.

국제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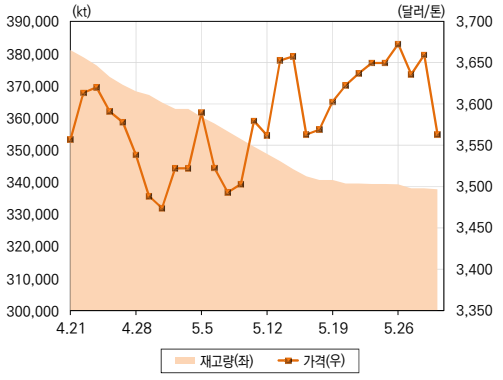
(a) 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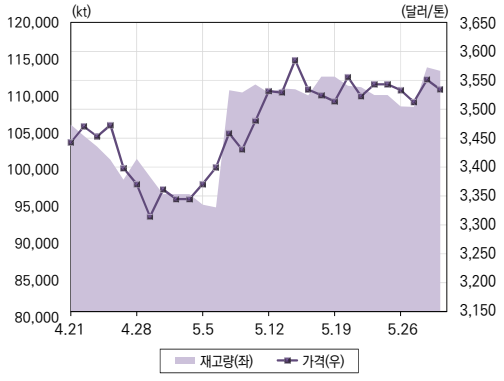
(b)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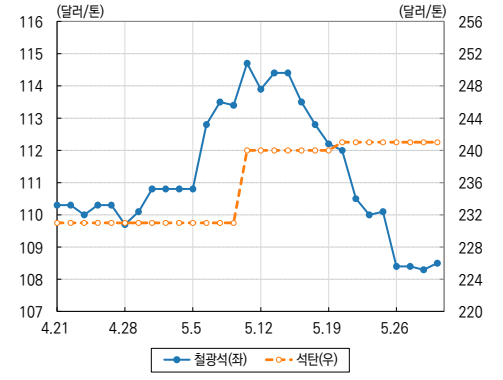
(c)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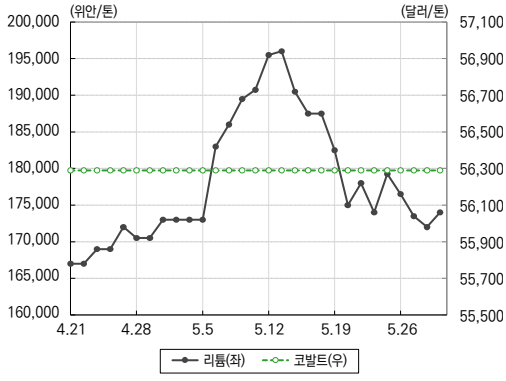
(d) 아연



(e) 철광석·연료탄(철강)



(f) 리튬·코발트(희소광물)



자료: Datastream.

2

국내 경제·산업 동향

(1) 국내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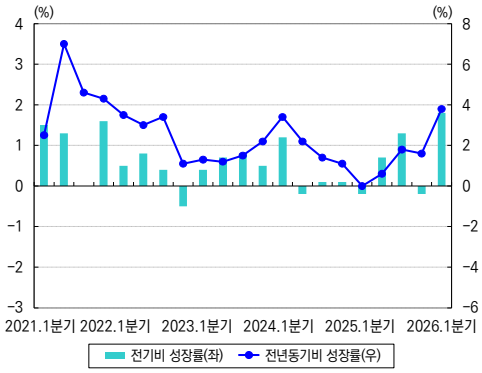
1) 국내 실물경기

□ 1분기 국내 경제, 수출과 내수 동반 개선으로 강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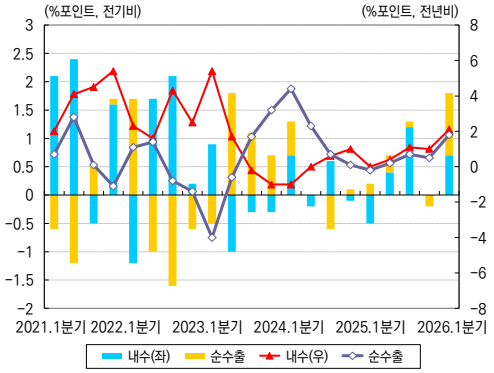
●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내수(전기비 0.7%포인트)와 순수출(1.1%포인트) 모두 플러스 기여도를 나타내면서 전기비 1.8%로 2020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동기비로도 내수(2.1%포인트)와 순수출(1.8%포인트)의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3.8% 기록

국내 실질GDP 성장률 추이

(a)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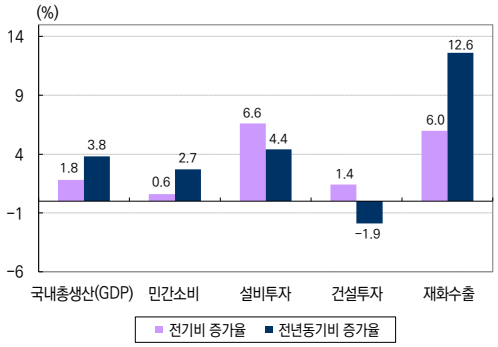
(b)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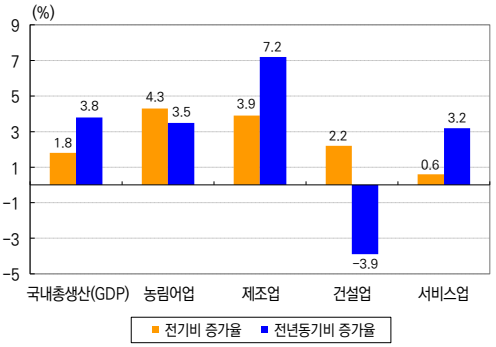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내 지출항목별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동향(올해 3분기)

(a) 지출항목별 성장률



(b) 경제활동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 주요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현저하게 완화된 점이 특징적이고, 경제활동별로 보더라도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반 확대된 가운데 건설업의 약세도 다소 완화

□ 4월 산업생산, 광공업과 서비스업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 4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5.5%)의 감소에도 불구 광공업(1.5%)과 서비스업(3.5%)의 증가세 지속과 공공행정(2.9%) 증가 전환 등으로 증가세 지속

국내 산업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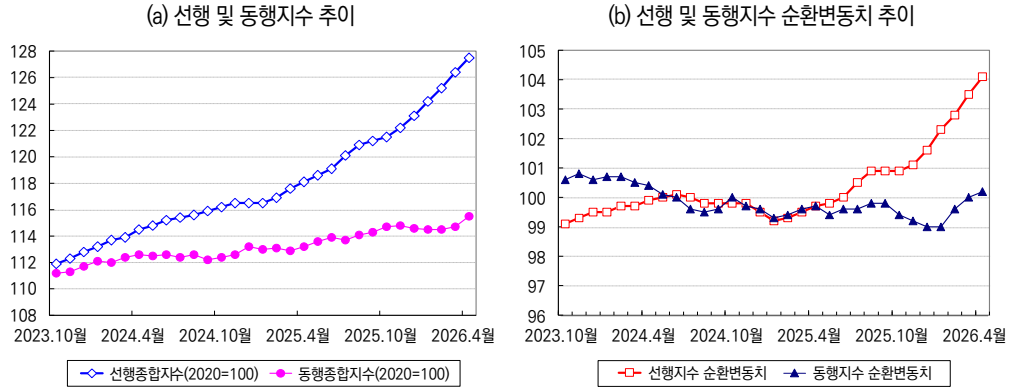
	2024	2025		2026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전 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	1.6	1.1	3.6	-0.2	2.8	0.1	3.7	2.4	-0.6
광공업	4.1	2.8	7.8	-2.0	2.6	-2.3	3.9	1.5	-0.7
건설업	-4.6	-16.4	-11.9	-15.1	-5.5	-4.4	-5.8	-5.5	-1.4
서비스업	1.3	2.0	3.2	2.3	4.0	2.1	5.4	3.5	-1.0
공공행정	-0.8	0.1	0.2	-0.4	0.8	-0.8	-2.4	2.9	4.5

자료: 국가데이터처.

□ 4월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반 상승세 지속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

국내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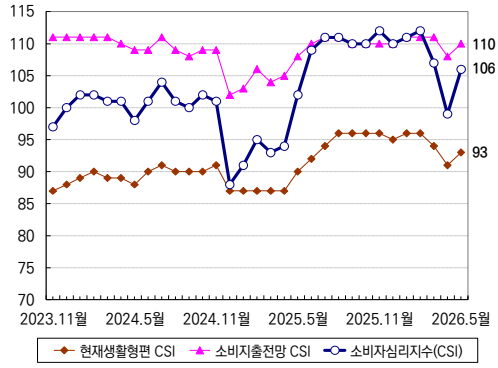
2) 국내 체감경기

□ 5월 체감경기, 소비자심리지수 및 기업심리지수 동반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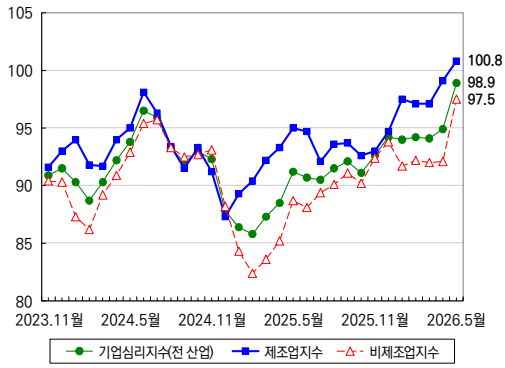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형편지수(93)와 소비전망지수(110) 모두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 기업심리지수(98.9)는 제조업지수(100.8)와 비제조업지수(97.5) 모두 지난달에 이어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에서 자동차, 기타기계·장비, 화학물질·제품, 조선·기타운수 등 다수 업종이 전월에 이어 상승했고, 비제조업에서 정보통신서비스와 전문·과학·기술 업종은 하락한 반면, 운수·창고, 도소매는 상승 전환하고 숙박, 예술·스포츠·여가 등 다수의 업종이 전월에 이어 상승

국내 주요 체감지표 추이

(a)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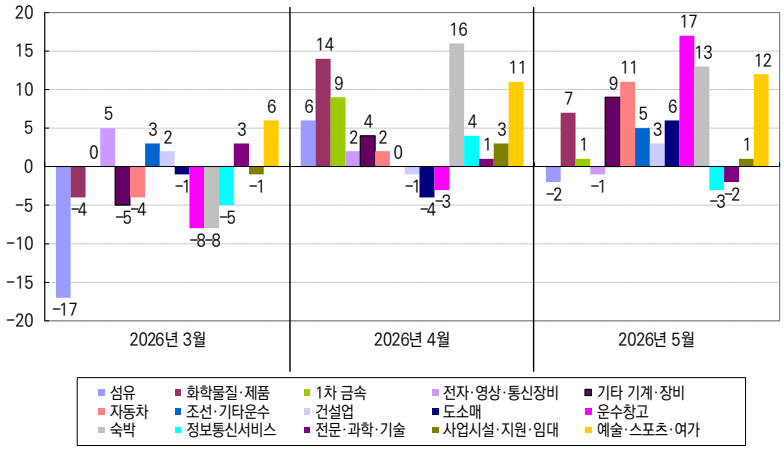


(b) 기업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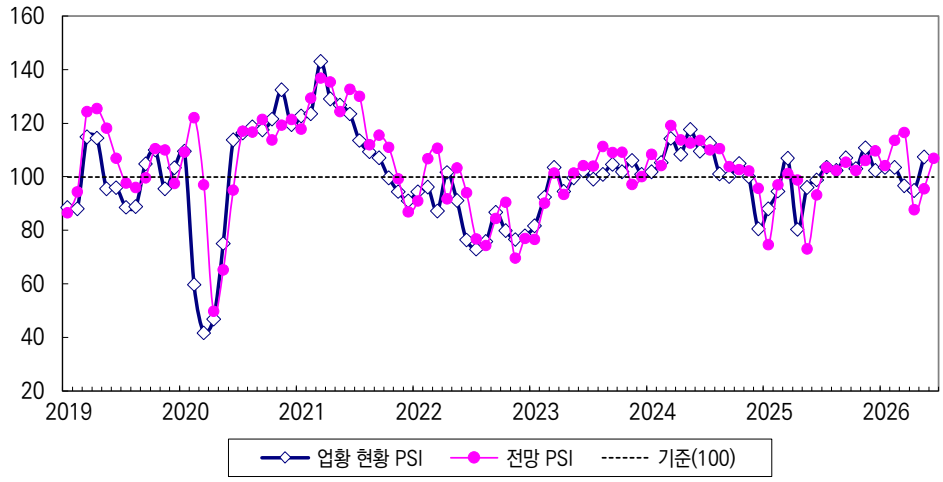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월비 변화폭 동향(업황 현황 BSI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산업연구원의 국내 제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의 5월 업황 현황 PSI가 107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비로 4개월 만에 반등(12포인트)
- 6월 업황 전망 PSI는 107을 기록하는 등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상회하고, 전월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상승(12포인트)

국내 제조업 업황 PSI 추이



자료: 산업연구원.

국내 제조업의 주요 유형별 업황 PSI

	업황 현황 PSI					업황 전망 PSI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제조업	97	95	107	(-2)	(+12)	88	95	107	(+7)	(+12)
ICT 부문	115	116	120	(+1)	(+4)	107	109	116	(+2)	(+7)
기계 부문	102	88	100	(-14)	(+12)	79	88	102	(+9)	(+14)
소재 부문	65	88	107	(+23)	(+19)	70	90	102	(+20)	(+12)

자료: 산업연구원.

- 주요 유형별 5월 업황 현황 PSI는 ICT 부문(120)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소재 부문(107)에서 202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상회한 점이 특징적
- 6월 업황 전망 PSI는 ICT 부문(116)이 상당 기간 기준치를 상회(13개월 연속)하는 가운데 기계 부문(102)과 소재 부문(102)도 3개월 만에 100을 동반 상회

(2) 소비·고용

□ 4월 소매판매,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및 의약품 등 비내구재 증가 영향으로 증가

● (재화별) 소매판매액은 내구재(전년동월비 1.6%)가 소폭 증가했고, 준내구재(4.5%)와 비내구재(0.5%)가 동반 증가하면서 증가

- 내구재는 통신기기·컴퓨터, 가구 등의 감소에도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증가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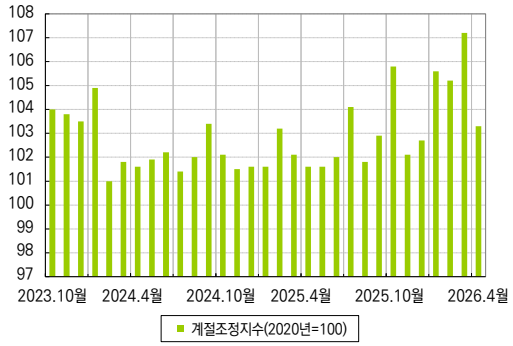
국내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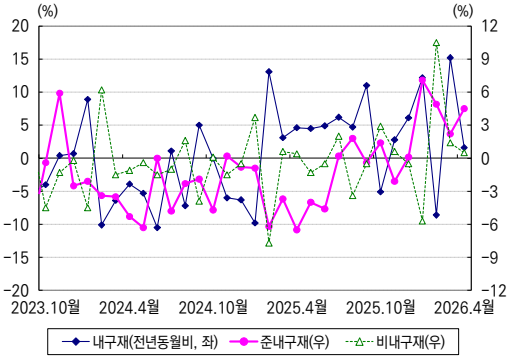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소매판매액	-1.9	0.3	1.6	0.9	3.3	4.2	5.0	1.6	-3.6
내구재	-3.6	3.8	7.3	1.2	6.1	-8.6	15.2	1.6	-11.1
통신기기 및 컴퓨터	-3.4	1.6	6.3	-0.9	-6.2	-35.9	24.4	-6.2	-29.0
준내구재	-3.0	-2.1	0.5	-0.2	4.7	4.9	2.2	4.5	0.0
의복	-3.9	-0.9	1.8	1.0	7.4	8.9	4.1	8.1	0.8
비내구재	-0.8	-0.2	-0.7	1.0	1.6	10.5	1.4	0.5	-1.1
음식료품	-1.4	-0.8	-2.8	0.8	0.6	21.3	-1.2	1.4	1.5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계절조정 기준.

(a)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b) 소매판매 재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 소매업태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백화점	-2.4	0.4	0.8	4.7	10.5	15.2	8.2	13.9	1.6
대형마트	-2.0	-4.4	-9.0	-3.2	-8.2	15.0	-12.5	-5.6	4.2
면세점	3.1	-14.1	-16.8	-7.7	0.1	-6.4	-2.1	-6.6	0.9
슈퍼마켓·잡화점	-1.9	-4.8	-7.3	-2.4	-1.6	13.9	-1.5	-0.9	-1.8
편의점	-0.1	-2.6	-1.5	-2.2	0.9	2.4	1.7	3.1	1.4
승용차·연료소매점	-4.0	5.4	8.8	1.2	5.4	-1.5	7.9	-3.8	-8.5
전문소매점	-4.2	0.5	1.1	2.2	3.6	4.0	6.5	3.3	-3.9
무점포소매	2.6	1.4	6.0	1.0	4.9	-0.3	8.7	4.3	-3.4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전문소매점은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준내구재는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의복, 신발·가방 등이 증가
- 비내구재는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의약품, 음식료품, 화장품 등이 증가한 모습

● (소매업태별) 4월 소매업태별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 등이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이 감소

□ 4월 전 산업 취업자 수, 고령층 및 서비스업 증가 유지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3% 증가

● (산업별) 4월 전 산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의 둔화가 축소되는 반면 제조업의 감소폭 소폭 확대, 서비스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0.3% 증가에 그쳐

● (연령대별) 65세 이상 연령층은 전년동월비 6.8% 증가하며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15~29세 청년층은 5.4% 감소하며 전월 대비 감소폭 확대

● (종사상 지위별) 4월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증가폭 감소 영향으로 0.2% 감소

국내 고용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2월	1/4	2월	3월	4월
전 산업		0.6	0.7	0.8	0.7	0.6	0.6	0.8	0.7	0.3
산업별	농림·어업	-1.9	-7.2	-8.6	-8.4	-9.0	-6.9	-7.6	-4.4	-6.4
	제조업	-0.1	-1.6	-1.5	-1.2	-1.4	-0.6	-0.4	-1.0	-1.2
	건설업	-2.3	-6.1	-5.0	-5.2	-3.1	-1.3	-2.1	-0.8	-0.4
	서비스업	1.1	2.5	2.7	2.5	2.3	2.1	2.3	2.2	1.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6	-0.1	0.0	0.5	0.4	-0.1	-0.1	-0.4	-1.5
	전기·운수·통신·금융	4.2	2.6	1.4	2.7	3.2	2.1	1.8	2.5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2	3.6	4.1	3.1	2.5	2.2	2.8	2.1	2.1
연령별	15~29세(청년층)	-3.7	-4.7	-4.6	-4.1	-3.1	-4.4	-4.1	-4.1	-5.4
	30~64세	0.1	0.1	0.2	0.0	-0.2	0.2	0.1	0.1	-0.1
	65세 이상	8.0	9.0	8.7	9.1	9.2	8.0	9.5	8.1	6.8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0	1.2	1.4	1.2	1.0	0.7	0.9	0.5	-0.2
	상용근로자	1.1	1.7	2.1	1.5	1.2	1.0	1.0	0.8	0.4
	비상용근로자	0.5	-0.1	-0.4	0.5	0.4	-0.3	0.9	-0.5	-1.8
실업률(계절조정, %)		2.8	2.8	2.7	2.9	3.3	2.9	2.9	2.7	2.8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3) 투자

□ 4월 설비투자,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증가

● 4월 설비투자는 정밀기기(16.5%), 일반기계(12.4%) 등 기계류(10.4%)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운송장비(3.6%)도 기타운송장비(-7.9%)가 감소했지만 자동차(10.7%)가 늘면서 전년동월비 8.1%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류(0.5%)가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4.6%)와 기타운송장비(-20.8%)의 동반 부진으로 운송장비(-11.5%)가 줄어 3.6% 감소

국내 설비투자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월	3월	4월	전월비
부문별	설비투자	3.0	1.2	1.2	-6.2	9.8	6.5	9.8	8.1	-3.6
	기계류	2.0	0.6	3.1	-4.7	7.5	4.3	4.1	10.4	0.5
	일반기계류	4.8	-0.3	-0.2	-7.3	8.4	5.5	2.1	12.4	0.1
	전기 및 전자기기	-2.7	0.3	8.0	-1.7	4.3	7.3	3.5	5.1	2.5
	정밀기기	0.8	9.3	11.4	4.0	11.6	-3.0	17.0	16.5	-0.1
	기타기기	-4.4	-4.5	-1.2	-6.4	1.2	-3.6	-1.1	0.0	-0.6
	운송장비	5.3	2.3	-3.4	-9.5	16.0	12.1	24.7	3.6	-11.5
	자동차	-6.6	11.2	21.5	-2.1	30.1	39.6	21.7	10.7	-4.6
	기타운송장비	31.3	-11.8	-36.6	-20.1	-5.6	-28.9	31.6	-7.9	-20.8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3월과 4월은 잠정치.

국내 기계수주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월	3월	4월	전월비
수요자별	국내수요	-3.1	1.8	-14.4	3.5	-2.8	-1.4	-2.2	-7.6	-1.7
	민간수요	-8.2	3.0	-10.4	-0.4	-1.0	2.1	-3.7	-7.7	-1.5
	제조업	-7.9	3.9	-16.8	0.0	8.6	11.2	26.1	-3.0	-1.6
	[ICT 부문]	-14.9	18.3	-22.1	-8.4	16.3	18.1	34.9	8.6	
	[기계 부문]	-8.7	58.2	-23.2	20.8	3.5	41.8	18.6	-25.9	
	[소재 부문]	25.9	49.2	7.1	61.0	-27.1	-56.5	-2.0	23.3	
	비제조업	-9.1	47.6	7.7	-1.5	-19.6	-14.5	-44.8	-20.3	-1.2
	[건설업]	-9.0	-13.8	30.3	-3.2	-32.3	-27.3	-70.3	-14.7	
	[서비스]	-9.5	-34.8	1.5	-0.8	-12.7	-9.6	-19.9	-22.4	
	유통서비스	-6.3	57.7	-2.7	-8.3	-25.3	-37.5	-23.2	-29.8	
	생산자서비스	-7.3	16.8	17.1	35.5	11.4	42.5	-17.0	8.9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3월과 4월은 잠정치.

- 4월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제조업(-3.0%)과 비제조업(-20.3%)의 동반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7.6% 감소했고, 전월비로도 1.7% 감소

□ 4월 건설투자, 건설기성 감소세 유지, 건설수주 증가세 유지

● 4월 건설투자(기성)는 건축(-6.4%)과 토목(-2.8%)이 동반 부진하면서 전년동월비 5.5% 감소(연속 감소세 유지)

- 전월비로도 건축(-1.5%)과 토목(-1.1%)이 모두 줄면서 1.4% 감소

국내 건설기성액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월	3월	4월	전월비
공종별	합계	-4.6	-16.5	-11.9	-15.1	-6.2	-5.9	-5.8	-5.5	-1.4
	건축	-6.6	-17.5	-13.0	-15.3	-8.5	-8.4	-7.7	-6.4	-1.5
	토목	2.0	-13.5	-8.6	-14.6	0.4	1.8	-0.7	-2.8	-1.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3월과 4월은 잠정치.

● 4월 건설수주액은 건축(24.4%)과 토목(93.6%)이 모두 늘면서 전년동월비 39.3% 증가

- 전월비로는 4.0% 감소

국내 건설수주액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월	3월	4월	전월비
공종별	합계	10.8	4.9	27.4	1.1	31.5	16.7	36.2	39.3	-4.0
	건축	17.4	14.6	28.6	2.2	25.3	36.6	18.0	24.4	
	토목	-2.2	-17.7	24.1	-2.0	56.1	-34.2	183.8	93.6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3월과 4월은 잠정치.

(4) 산업생산

□ 4월 제조업 생산, 제조업 ICT 부문 증가세에 힘입어 증가

- 4월 제조업 생산은 기계(-4.6%)와 소재(-1.6%) 등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ICT(11.2%)가 크게 늘면서 전년동월비 1.6% 증가
  - 전월비로는 ICT(2.4%)가 늘었지만 기계(-6.9%), 소재(-0.9%) 등이 줄어 0.8% 감소
- 4월 제조업 재고율은 출하가 줄고 재고가 늘면서 5.1%포인트 상승한 98.2%를 기록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

국내 주요 제조업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월	3월	4월	전월비
제조업 생산	4.3	3.0	8.1	-1.9	3.0	-2.0	4.2	1.6	-0.8
[ICT 부문]	-2.3	0.0	18.2	-0.3	8.2	20.1	7.3	11.2	2.4
[기계 부문]	-11.3	2.6	7.0	-2.9	0.9	-15.2	5.1	-4.6	-6.9
[소재 부문]	2.2	-1.3	1.4	-4.2	1.9	-3.1	1.7	-1.6	-0.9
재고율	100.2	95.3	102.9	100.7	98.0	98.5	93.1	98.2	
평균가동률	72.6	72.6	72.1	72.5	72.9	74.4	74.9	73.7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3월과 4월은 잠정치. 재고율은 100*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계절조정)로 계산.

□ 4월 서비스업 생산, 개인·유통·생산자·사회서비스 등 증가로 전년동월비 3.5% 증가

- 4월 서비스업 생산은 개인서비스(1.4%), 유통서비스(2.9%), 생산자서비스(5.0%), 사회서비스(2.4%)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3.5% 증가
  -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과학·기술(9.4%), 금융·보험(5.5%), 도소매(3.1%) 등 모든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

국내 주요 서비스업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	1.3	2.0	3.2	2.3	4.2	2.2	5.4	3.5	-1.0
개인서비스	-0.6	-1.1	1.2	-1.5	0.5	0.1	-0.8	1.4	2.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0.8	-4.2	-1.8	-5.5	-0.6	-8.3	1.6	2.0	0.7
숙박·음식점	-1.8	-0.9	1.4	0.0	0.3	-1.6	-0.7	1.1	2.1
예술·스포츠·여가	1.8	-0.2	1.0	1.6	2.1	9.7	-1.9	0.8	4.3
협회·수리·개인	-0.6	-1.4	2.2	-6.8	-0.2	-2.6	-0.6	2.5	0.9
유통서비스	1.8	3.1	5.1	2.7	4.2	1.3	5.5	2.9	-1.0
도소매	-2.0	2.9	6.2	3.4	4.4	1.2	5.8	3.1	-1.5
운수·창고	8.4	3.5	3.5	1.5	3.7	1.4	5.0	2.7	-0.1
생산자서비스	1.5	1.9	2.6	2.4	5.4	3.5	7.9	5.0	-2.2
정보통신	2.6	1.5	1.8	0.8	-0.1	-3.2	4.7	3.8	4.3
금융·보험	2.4	2.9	3.1	3.4	8.9	5.7	13.3	5.5	-7.7
부동산	-2.8	-1.4	-0.8	-1.7	0.5	-2.3	0.9	0.4	-0.5
전문·과학·기술	1.3	2.7	4.6	4.4	7.4	9.3	5.2	9.4	3.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0.6	-0.2	1.4	1.1	1.4	1.1	1.9	1.6	0.3
사회서비스	2.4	3.0	3.0	3.9	3.7	3.2	3.5	2.4	-1.2
교육	0.0	-1.6	-1.0	-0.9	-0.2	-2.2	0.6	0.8	0.7
보건·사회복지	3.7	5.4	5.1	6.5	5.7	6.0	5.1	3.2	-2.2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

- 전월비로는 정보통신(4.3%), 전문·과학·기술(3.0%) 등이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7.7%), 보건·사회복지(-2.2%) 등이 감소하면서 1.0% 감소

(5) 물가

□ 5월 소비자물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가폭 확대

● 5월 소비자물가는 교통(11.6%), 음식·숙박(2.7%), 주택·수도·전기·연료(1.8%),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3.1% 상승

- 전월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0.0%)가 보합에 그치고, 교통(1.5%), 주택·수도·전기·연료(0.2%), 음식·숙박(0.3%) 등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0.5% 상승

국내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소비자물가	2.3	2.1	2.0	2.4	2.1	2.2	2.6	3.1	0.5
근원물가	2.1	2.2	2.2	2.4	2.3	2.3	2.2	2.5	0.5
주요 품목별									
식료품·비주류음료	3.9	3.2	3.9	3.9	1.8	0.5	0.3	1.6	0.0
주택·수도·전기·연료	1.7	1.6	1.4	1.2	1.3	1.5	1.7	1.8	0.2
교통	1.4	1.3	0.4	3.3	2.4	5.0	9.7	11.6	1.5
음식·숙박	3.1	3.1	3.2	3.0	2.9	2.7	2.6	2.7	0.3

자료: 국가데이터처.

□ 4월 생산자물가, 국제유가·석유류 가격 상승과 서비스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상승폭 확대

● 주요 품목별로 공산품(11.3%), 서비스(3.8%), 농림수산품(1.0%) 등의 품목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상승폭 확대

- 전월비로는 공산품, 서비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등이 상승했고 농림수산품이 하락

●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가 하락한 반면, 반도체, 정유, 철강, 화학, 가전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

- 전월비로는 정유, 반도체, 화학, 철강, 가전 등의 업종이 상승

국내 생산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생산자물가	1.7	1.2	0.8	1.8	2.8	2.4	4.1	6.9	2.5
근원물가	1.6	1.1	0.6	1.8	3.3	2.9	4.5	7.0	2.2
주요 품목별									
농림수산품	4.5	1.3	2.8	5.2	2.5	4.5	0.5	1.0	-1.0
공산품	0.9	0.6	-0.2	1.7	3.4	2.3	5.9	11.3	4.4
전력·가스·수도·폐기물	3.2	3.1	3.1	-0.3	-1.2	-1.1	-1.1	-1.2	0.3
서비스	2.2	1.7	1.5	2.2	3.0	3.2	3.1	3.8	0.8
업종									
자동차	1.9	0.4	0.5	0.4	0.6	0.6	0.7	0.6	0.0
기계	1.7	0.9	0.7	0.8	0.9	0.8	0.9	0.9	0.2
철강	-2.1	2.2	0.5	4.8	8.2	8.3	8.2	11.8	2.6
정유	-0.2	-4.1	-5.3	-1.5	0.7	-7.5	22.8	59.2	24.3
화학	0.6	-0.9	-1.6	0.1	2.8	0.4	7.4	15.6	6.6
섬유	0.5	-0.2	-0.2	0.0	1.0	0.6	1.7	2.7	0.9
가전	0.0	0.2	-0.3	0.3	4.5	1.7	10.7	13.0	2.1
반도체	17.0	10.4	0.2	38.5	81.6	79.7	94.1	118.6	14.3
디스플레이	1.1	-0.4	-2.5	-0.3	-3.0	-3.3	-2.2	-1.7	0.0

자료: 국가데이터처.

(6) 수출입

1) 수출입·무역수지

□ 5월 수출, 12개월 연속 증가, 무역흑자 폭은 확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3.2% 증가한 878억 달러이고, 수입은 20.8% 증가한 608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31억 달러 증가한 269억 달러 기록

국내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4	2025			2026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수출	6,836 (8.1)	7,094 (3.8)	1,849 (6.5)	1,898 (8.4)	2,206 (38.3)	676 (29.2)	872 (50.2)	859 (48.0)	878 (53.2)
수입	6,318 (-1.7)	6,318 (0.0)	1,625 (1.6)	1,622 (1.4)	1,694 (10.8)	519 (7.3)	604 (13.3)	621 (16.7)	608 (20.8)
무역수지	518	776	224	276	512	157	268	238	269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2) 5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가전 등이 감소
-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2개월 연속 증가(15.9%)했고, 비에너지 부문도 증가(22.0%)

● 품목군별 수출은 ICT산업군,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신산업군 모두 증가세 지속

- (ICT산업군) 반도체는 주요 수출국인 미·중 빅테크 기업의 견조한 수요에 따라 호황기가 지속되어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신제품 출시 대응으로 증가 전환, 무선통신기기는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호조세로 7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컴퓨터는 SSD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가전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향 부진 지속으로 감소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부품수급 차질(협력사 공장 화재),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고차 수출 부진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부품은 부품 현지조달 기조 등으로 감소 지속, 선박은 LNG선 등 선박 인도량 증가로 증가 지속, 일반기계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감소 지속
- (소재산업군) 석유제품은 주요 제품 수출제한에 따른 물량 감소에도 단가 상승으로 증가하였고,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세로 증가 지속, 철강은 수출물량 회복에도 저가 제품 위주 수출로 단가가 하락하며 감소 지속, 섬유는 재고조정, 신규 주문 감소, 중국 외 지역의 수요 둔화로 감소

주요 품목군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총수출	8.1	3.8	6.5	8.4	38.3	29.2	50.2	48.0	53.2
ICT산업군	39.4	17.4	19.0	30.6	128.3	146.9	140.0	173.0	164.1
기계산업군	10.9	3.4	5.7	8.5	45.2	37.9	58.7	59.6	67.0
소재산업군	19.9	6.0	8.3	16.6	79.7	75.2	101.6	105.7	110.3
신산업군	0.9	0.9	-2.4	2.0	10.9	3.8	14.5	11.3	12.4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5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신산업군) 바이오헬스는 신규 제품군의 주요국 시장 안착, 대형 제약사 중심 수주 강세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이차전지는 수출물량 증가 및 단가 개선으로 증가 전환

● 지역별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EU, 일본, 중남미, 인도 등 다수 지역으로 증가한 반면, 중동, CIS 등으로 감소

- 대미국은 자동차, 일반기계 등 관세 대상 품목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컴퓨터, 전기기기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의 호실적으로 증가세 지속

- 대중국도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과 더불어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중국	6.6	-1.7	-1.9	3.7	49.4	34.3	65.8	62.6	80.9
미국	10.4	-3.8	-4.0	-3.9	35.8	28.4	47.8	54.0	59.1
일본	2.1	-4.4	-2.0	-7.6	10.8	5.3	33.9	28.4	11.8
아세안	4.5	7.4	12.8	8.8	36.3	31.8	37.1	64.0	58.4
EU(27)	-0.2	3.0	5.6	-1.2	12.5	9.5	19.3	8.5	2.4
베트남	9.1	7.6	12.4	9.7	38.0	24.5	41.9	64.1	61.4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5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대아세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증가
- 대EU는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헬스, 석유화학 등 품목 호조로 6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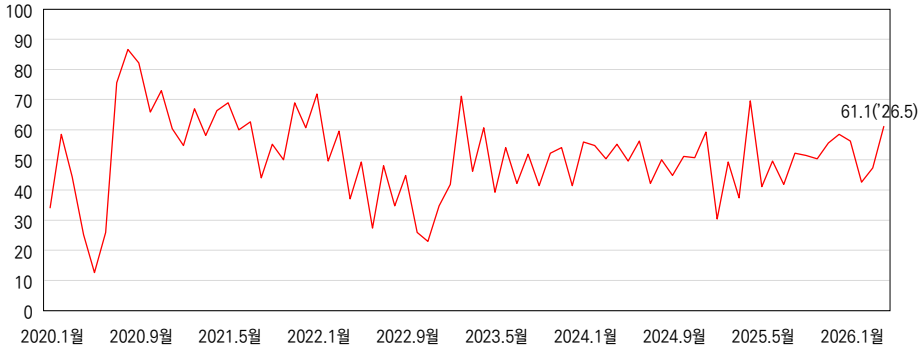
2) 수출경기·교역지표

□ 4월 수출경기확산지수 50 상회로 향후 경기상승 국면 예고

● 4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전월 대비 13.7포인트 상승하여 기준 50을 상회하며 61.1을 기록, 향후 수출 경기 국면을 긍정적으로 예고

- (원료 및 연료) 10개 품목 중 전월비 7개 품목이 상승한 가운데, 금속광, 경유, 기타 석유제품, 기타 원료 및 연료 등은 전월비 상승한 반면, 벙커C유 등은 하락
- (경공업) 55개 품목 중 전월비 37개 품목이 상승한 가운데, 의류, 가구, 기타 고무제품, 귀금속(금·은), 플라스틱 제품 등은 전월비 상승, 합성 섬유직물 등은 하락
- (중화학공업) 59개 품목 중 전월비 32개 품목이 상승하였으며, 의약품, 비철금속, 컴퓨터 주변기기,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등은 상승한 반면, 기타 일반 기계류, 정밀기기, 무선통신기기, 승용자동차 등은 하락

국내 수출경기확산지수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
주: 수출경기확산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보다 크면 경기상승(확장) 국면, 작으면 경기하락(수축) 국면, 50일 때는 경기 전환점이며 실수출경기보다 수출은 약 7.4개월 선행.

□ 4월 수출금액, 수출물가 및 물량 동반 증가로 증가세 지속

● (수출금액) 4월 수출금액은 수출단가 상승과 물량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0.2% 증가

- 특히 수출물가 상승폭 확대가 수출금액 증가를 견인

● (수출물량) 4월 수출물량은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의 동반 증가로 전년동월비 12.4% 증가

- 농림수산품(16.0%)과 공산품(12.5%)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견조한 증가세 유지

국내 수출 물가 및 물량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수출금액	7.4	3.1	6.0	7.8	39.9	37.1	28.6	52.6	50.2
수출물량	5.5	4.9	9.4	6.2	23.1	28.1	16.6	23.6	12.4
농림수산품	7.2	6.3	6.5	2.6	8.3	18.7	-12.2	20.1	16.0
공산품	5.6	4.9	9.4	6.2	23.1	28.1	16.6	23.6	12.5
수출물가	6.1	2.2	-1.2	5.5	16.1	7.8	11.1	29.5	40.8
농림수산품	-2.3	7.3	9.2	8.9	11.3	6.4	11.9	15.7	28.5
공산품	6.2	2.2	-1.3	5.5	16.1	7.8	11.1	29.5	40.9
석탄 및 석유제품	-2.4	-5.5	-4.1	-0.3	21.6	-13.5	-5.1	87.5	101.8
화학제품	2.6	-1.0	-4.9	-2.9	-0.6	-6.0	-6.3	10.6	21.9
1차금속제품	0.4	5.3	2.8	11.8	20.4	22.0	19.5	19.7	24.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9.2	5.9	-0.7	16.7	47.3	34.4	45.4	62.1	88.7
전기장비	5.3	4.8	2.1	4.9	1.3	2.4	0.7	0.7	2.1
기계 및 장비	4.2	3.5	1.8	4.2	2.4	1.8	2.0	3.3	3.9
운송장비	5.6	1.9	-2.2	-0.2	-2.4	-2.7	-2.8	-1.6	0.3

자료: 한국은행.
주: 수출물가는 원화 기준, 4월은 잠정치.

● (수출물가) 4월 수출물가는 공산품 가격 상승세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0.8%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 지속

- 농림수산품은 28.5% 상승하였으며,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01.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88.7%)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며 40.9% 상승

국내 수입 물가 및 물량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수입금액	-2.2	-0.2	1.9	1.4	11.0	12.0	7.9	12.9	16.8
수입물량	-0.5	4.6	7.8	4.7	12.4	14.0	10.6	12.3	-0.1
농림수산품	-3.0	-0.5	4.6	-3.7	3.3	20.0	-15.5	5.5	1.5
광산품	-2.8	0.7	4.4	2.4	6.5	2.7	16	2.4	-21.4
공산품	0.2	5.7	8.4	5.3	13.9	17.3	9.4	14.7	9.3
수입물가	2.6	-0.4	-2.5	1.0	7.0	-0.9	1.6	20.4	20.2
원재료	0.4	-6.3	-7.5	-6.1	8.6	-9.5	-3.5	40.1	33.0
농림수산품	5.2	7.7	1.8	4.9	-1.5	-1.3	-3.3	0.2	3.0
광산품	0.0	-7.7	-8.4	-7.2	9.7	-10.2	-3.5	44.8	36.5
중간재	3.9	1.5	-1.9	3.9	8.5	3.3	4.8	17.3	21.9
석탄 및 석유제품	6.8	-6.6	-9.9	-11.2	8.5	-13.8	-7.5	48.2	67.0
화학제품	0.1	2.7	-0.2	1.9	4.7	-1.0	-1.1	16.0	20.0
1차금속제품	1.5	5.5	2.7	11.7	18.1	19.0	16.9	18.4	26.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3.3	0.0	-5.8	10.4	16.9	12.6	17.9	20.2	19.0
전기장비	-0.1	1.5	-2.4	-0.8	-2.8	-4.0	-3.0	-1.4	3.5
기계 및 장비	2.6	7.9	6.0	6.0	1.9	3.2	2.4	0.3	-1.4
운송장비	1.8	6.8	6.2	8.9	6.8	8.0	7.5	5.0	3.7
자본재	2.6	3.7	2.4	3.8	1.7	1.9	1.5	1.6	1.7
소비재	3.8	3.9	2.8	4.9	2.8	2.5	2.5	3.3	3.8

자료: 한국은행.
주: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4월은 잠정치.

● (수입금액) 4월 수입금액은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6.8% 증가

- 원재료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수입금액 증가를 견인

● (수입물량) 4월 수입물량은 광산품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1% 감소

- 광산품(-21.4%)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농림수산품(1.5%)과 공산품(9.3%)은 증가세 둔화

● (수입물가) 4월 수입물가는 원재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0.2% 상승

- 원재료가 광산품(36.5%)을 중심으로 33.0% 상승하며 전체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제품(67.0%), 1차 금속제품(26.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9.0%) 등을 중심으로 21.9%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를 유지

3

주요 산업별 동향

(1) 자동차

□ 4월 생산, 부품 공급 불안정으로 감소

- 5월 수출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중고차 수출 감소 영향으로 완성차와 부품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5.3% 감소
  - 완성차는 HEV, BEV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고차 수출 감소와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전년동월비 5.9% 감소
  -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생산 감소와 현지조달 비중 상승으로 우리 부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2.5% 감소
- 4월 내수는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동월비 0.7% 증가로 정체
  - 국내 생산차량 판매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대형 승용차 감소폭이 커지면서 9.0% 감소
  - 수입차 판매는 테슬라, BYD 등의 BEV 전문 브랜드 판매가 크게 늘면서 54.7%의 큰 폭 증가
- 4월 생산은 현대·기아 협력업체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 영향과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비 7.1% 감소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	1.0	7.5	-4.6	0.3	-18.8	4.7	-7.1	-
	생산(전기비)	-	-	-2.0	-1.4	2.3	-0.9	7.5	-10.0	-
	출하	-2.0	0.8	7.1	-4.9	0.7	-17.4	5.4	-6.3	-
	재고	2.7	9.5	11.9	9.5	3.8	9.0	3.5	0.4	-
	가동률	-5.6	-1.5	5.8	-6.6	-2.0	-20.9	1.9	-8.3	-
	내수판매동향	-5.7	3.3	10.1	-4.2	14.0	-7.2	10.2	0.7	-
교역 동향	수출	-0.5	-0.2	7.5	-2.4	-2.1	-21.4	1.0	-5.7	-5.3
	수입	-9.4	3.2	15.2	0.4	14.8	30.7	1.3	1.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업체별로는 대미 수출이 증가한 한국GM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품 수급 차질 영향이 큰 현대차와 주력 모델 판매가 부진한 르노코리아의 감소폭이 큰 편

(2) 조선

□ 4월 생산 감소,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 4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3월과 유사한 흐름 지속
  -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2.8% 및 4.8% 감소했으나, 가동률은 8.5% 상승하여 생산활동은 꾸준한 것으로 추정
  - 4월 누적 건조량(클락슨)은 400만CGT로 전년동기 420만CGT 대비 소폭 감소
- 5월 수출은 LNG운반선 인도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비 16.7% 증가
  - 2022~2024년 수주한 고가의 LNG운반선, 2023~2024년 수주한 LPG운반선과 중형 유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3	25.5	18.7	22.8	-2.0	-7.3	-1.2	-2.8	-
	생산(전기비)	-	-	-1.8	11.1	-18.0	12.1	6.6	2.1	-
	출하	17.8	20.9	15.6	19.9	-5.1	-10.3	-4.3	-4.8	-
	가동률	8.9	35.8	38.4	48.5	5.8	-0.7	8.4	8.5	-
교역 동향	수출	17.7	24.1	31.9	25.3	13.7	41.3	10.8	43.8	16.7
	수입	60.4	15.4	-10.6	0.7	-4.9	13.8	-38.5	-32.3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조선 등의 인도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 유지

● 4월 수입은 선박용 엔진, 부품이 증가했으나, 화물선이 크게 줄어 전년동월비 32.3% 감소

- 4월 선박용 엔진이 40.2%, 선박용 부품이 163.5% 증가했음에도 화물선이 41.7%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3월과 유사한 흐름 지속
- 전년동월 호주와 일본으로부터 화물선이 유입된 기저효과가 있었으며,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 선박용 부품이 크게 증가

● 4월 누적 수주는 우리나라가 전년동기비 16% 증가한 470만CGT를, 중국은 39% 증가한 1,850만CGT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74% 감소한 30만CGT에 불과

- 4월까지 전년동기비 VLCC 300%, LPGC 265%, LNGC 180%, Suezmax Tanker 118% 등 유조선과 가스운반선 발주가 크게 증가했으며, 수주 점유율은 중국 70.9%, 한국 18.0%, 일본 1.1%로 한국 점유율 하락
- 5월 클락시 인덱스(ClarkSea Index)는 유조선 운임 조정으로 하락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

  * ClarkSea Index(달러/일): (2025년 연평균) 26,836 → (2026년 3월) 47,275 → (5월) 39,162

- 5월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3월 182.07에서 반등한 후 지속 상승하며 185.01을 기록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2022년) 161.8 → (2025년) 184.7 → (2026년 5월) 185.01

(3) 일반기계

□ 4월 생산, 내수·수출 감소에도 전년동월 수준 유지

● 4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감소에도 설비투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보합세(0.0%) 기록

- 내수출하와 기계수주는 각각 5.3%, 7.6%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는 12.4% 증가
  * 일반기계 내수출하증가율(전년동월비, %): (2026년 2월) -14.7 → (3월) -0.1 → (4월) -5.3
  * 일반기계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월비, %): (2026년 2월) 5.5 → (3월) 2.1 → (4월) 12.4
  * 국내기계 수주증가율(전년동월비, %): (2026년 2월) -1.4 → (3월) -2.2 → (4월) -7.6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지수(-2.8%, 전월비)가 하락했고 재고지수(2.6%, 전월비)가 상승하며 전월비 6.8%포인트 상승한 128.5%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재고율(98.2%) 대비 30.3%포인트 높은 수준
  * 재고율(%): (2026년 2월) 124.4 → (3월) 121.7 → (4월) 128.5
- 가동률은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2.4% 상승

● 5월 수출은 대외 수출 환경 불확실성 장기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6.3% 감소

- 대미국은 관세 불확실성 및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감소세(-8.0%) 지속
- 대중국은 부동산 시장 부진 및 민간 투자 위축으로 감소세(-2.1%) 지속
- 대EU는 국내 기업의 투자 증가 영향으로 증가(16.4%) 전환
- 대아세안은 투자 수요 위축 지속으로 감소세(-3.7%) 지속
- 대인도는 제조업 투자 및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증가세(9.5%) 지속
  * 5월 주요국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8.0, -8.0%), 중국(4.1, -2.1%), EU(4.0, 16.4%), 아세안(3.4, -3.7%) 인도(1.6, 9.5%)

● 4월 수입은 기계류 수주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2% 감소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358.0%), 운반하역기계(28.9%), 금형(26.5%) 등이 증가한 반면, 금속공작기계(-27.4%), 섬유 및 화학기계(-21.1%),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16.1%) 등이 감소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4	-0.8	3.3	-5.9	2.9	-9.5	7.6	0.0	-
	생산(전기비)	-	-	-0.9	-0.1	2.5	-1.8	7.0	-3.6	-
	출하	-1.3	-0.2	2.8	-4.1	0.1	-11.1	4.1	-2.1	-
	재고	-6.3	0.0	2.2	0.0	6.3	2.0	6.3	8.7	-
	가동률	-7.1	1.5	6.4	2.3	7.2	-4.6	7.5	2.4	-
교역 동향	수출	-4.2	-8.2	-7.0	-7.2	-5.3	-16.2	-6.4	-2.6	-6.3
	수입	0.4	6.1	9.9	5.6	7.1	-0.1	7.9	-2.2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4) 철강

□ 4월 생산, 증가세 유지, 5월 수출, 물량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감소 지속

- 4월 생산은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성수기 진입 및 수요 개선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4% 증가
  - 계절적 성수기 진입 및 반도체 등 대형 인프라용 강재 수요 확대에 따른 내수 개선으로 전월비 생산 증가세 지속
  - 품목별로는 주요 철강사의 생산공장 대보수 영향으로 중후판과 형강이 감소하였으나, 내수 개선 및 수출 확대 영향으로 봉강, 철근 등 주요 봉형강류가 증가
- 5월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으로의 수출물량 감소 및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1% 감소
  - 5월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874달러로 전년동월비 1.0% 하락
  - 대미국은 미국 내 철강 가격 강세 지속 및 건설 착공 수요 확대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

된 반면, 아세안, 중남미, 일본으로는 감소세 유지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아세안(-6.1%), 미국(28.4%), EU(0.0%), 중남미(-19.8%), 일본(-8.8%)

● 4월 수입은 중국, 베트남 등지로부터의 수입물량 축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1% 감소

- 4월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830.8달러로 전년동월비 2.8% 상승
- 국가별로는 중국(-3.5%), 베트남(-16.2%) 등지로부터 감소한 반면, 일본(2.4%)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전월에 이어 증가 지속
- 품목별로는 반덤핑 관세에 따른 열연강판의 수입물량 감소세는 지속된 반면, 봉형강 및 주요 판재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확대로 증가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3.5%), 일본(2.4%), 프랑스(61.6%), 대만(32.1%), 베트남(-16.2%), 미국(11.3%), 인도(39.2%), 독일(27.9%), 말레이시아(334.8%)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열연강판(-46.0%), 아연도강판(27.0%), 중후판(28.7%), 강반제품(-11.9%), 선재(-2.0%), 냉연강판(33.6%), 봉강(22.1%), H형강(-19.7%), 철강관(20.7%), 도금강판(49.4%), 전기강판(55.8%), 철근(33.4%)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3.7	0.5	-7.1	3.1	0.8	3.0	1.4	-
	생산(전기비)	-	-	0.3	-3.5	2.4	-0.2	1.2	1.2	-
	출하	-3.6	-3.2	-0.7	-8.7	1.5	-1.6	2.0	-1.5	-
	재고	8.1	-0.7	-2.9	-0.7	-2.4	-1.4	-2.4	2.2	-
	가동률	-1.7	-4.0	-0.1	-7.6	3.5	0.9	3.5	2.2	-
교역 동향	수출	-4.9	-7.6	-6.4	-14.0	-2.6	-5.3	-0.3	-9.3	-2.1
	수입	-11.5	-16.8	-4.3	-12.6	1.0	-0.1	9.5	-0.1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2) 3월까지의 수출입 동향 수치는 한국무역협회의 MTI 체계 개편(2026. 6)으로 전월 호 수치와 상이.

(5) 정유

□ 5월 수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량 감소에도 고유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50.8% 증가

● 4월 생산은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한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20.6% 감소

- 내수는 항공유를 비롯한 수송용 석유제품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인 나프타도 22.2% 감소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83.0%), 벙커C유(-79.6%), 아스팔트(-44.0%), 경유(-27.6%), 나프타(-22.2%), 휘발유(-16.5%), LPG(-15.3%), 윤활유(6.0%)

- 수출물량은 국내 석유제품 생산 감소 및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36.0% 감소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아스팔트(-40.8%), 윤활유(-3.1%), 항공유(-18.8%), 경유(-15.5%), 벙커C유(-82.0%), 휘발유(-33.5%), 나프타(-100.0%)

● 5월 수출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50.8% 증가한 54억 달러를 기록

- 수출물량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인한 주요 제품군 수출제한 조치로 23.3%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유가 상승 및 정제마진 호조 지속으로 92.4% 증가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0.3	2.5	2.3	6.3	5.5	6.9	-20.6	-
	생산(전기비)	-	-	1.9	-1.6	1.5	-2.2	-6.5	-19.6	-
	출하	4.2	-2.6	3.1	-2.0	4.9	-0.3	2.8	-20.7	-
	재고	-5.8	0.2	-18.3	0.2	11.3	-3.6	11.3	4.1	-
	가동률	1.8	-0.3	2.7	2.2	6.2	5.5	6.8	-20.7	-
	내수판매동향	3.5	-2.8	2.7	-4.5	-3.1	-3.8	-9.4	-25.7	-
교역 동향	수출	-3.2	-9.7	-2.3	2.6	24.0	5.6	89.1	38.6	50.8
	수입	8.2	-15.3	-12.4	-22.5	-13.4	-20.4	2.9	4.1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5년 5월) 63.7 → (2026년 5월) 103.2(61.9%)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톤): (2025년 5월) 629 → (2026년 5월) 1,225(92.4%)
* 국제 휘발유/경유 스프레드(달러/배럴, 상승률): (2025년 5월) 75.0/79.4 → (2026년 5월) 129.6/155.8(72.8%/97.2%)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5년 5월) 35.8 → (2026년 5월) 54.0(50.8%)

-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는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중국 및 미국 등지로는 감소세 지속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아세안(55.7), 일본(29.7), 미국(-5.1), 중국(-22.3)

(6) 석유화학

□ 4월 생산 감소, 5월 수출액은 유가 급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

● 4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출하, 재고 및 가동률이 모두 전년동월비 하락

-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로 4월 중순 일부 기업이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감산 및 가동 중단에 나섰으나, 4월 말부터 수급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가동률이 상향 추세로 전환

● 5월 수출액은 유가 급상승으로 수출단가가 오르며 전년동월비 11.1% 증가

- 국제유가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가 각각 61.9%, 50% 상승(NCC 가동률 하락 및 수출물량의 내수전환으로 수출물량은 25.5% 감소하였으나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급등으로 수출액은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5년 5월) 63.73 → (2026년 5월) 103.15(+61.9%)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5년 5월 1~25일) 1,102 → (2026년 5월 1~25일) 1,654 (+50.0%)
- 대중국은 전년동월비 감소했으나, 그 외 지역으로는 모두 증가
  * 중국 -10.4%, 일본 58.8%, EU 29.2%, 아세안 33.0%, 중동 6.0%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1.3	0.9	-4.4	1.8	-2.9	1.6	-3.2	-
	생산(전기비)	-	-	0.2	-1.9	1.2	0.4	-0.1	-2.1	-
	출하	2.6	-1.5	-0.1	-5.2	0.8	-5.1	4.0	-6.3	-
	재고	1.3	0.1	-3.0	0.1	-1.7	6.3	-1.7	-5.8	-
	가동률	1.4	-2.0	-0.1	-3.1	1.4	-3.1	-0.2	-3.0	-
교역 동향	수출	5.0	-11.4	-9.5	-14.2	-2.0	-14.1	9.5	7.9	11.1
	수입	2.0	-4.6	-5.4	-4.5	-2.4	-16.1	11.0	27.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7) 섬유

□ 재고조정·수요 둔화 속 생산과 수출 동반 감소세 지속

● 4월 생산은 미들스트림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8.9%의 큰 폭 감소

- 화학섬유, 염색가공, 봉제의복 감소폭 확대가 전체 생산 급감 주도
- 방적사·편물 감소폭 축소, 직물 소폭 감소 전환으로 미들스트림 일부 완화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2월) 2.5% → (3월) -1.2% → (4월) -7.5%

* 방적사(전년동월비): (2월) -9.5% → (3월) -2.5% → (4월) -1.1%

* 직물(전년동월비): (2월) -10.7% → (3월) 4.6% → (4월) -2.3%

* 편물(전년동월비): (2월) -25.8% → (3월) 4.1% → (4월) -0.3%

* 염색가공(전년동월비): (2월) -22.3% → (3월) -9.0% → (4월) -17.2%

* 기타 섬유제품(전년동월비): (2월) -17.8% → (3월) -8.9% → (4월) -8.3%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2월) 2.4% → (3월) -6.0% → (4월) -13.2%

- 다만 국내 의류 소매·온라인 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 수요는 생산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2월) 11.5% → (3월) 6.5% → (4월) 10.6%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전년동월비): (2월) -1.0% → (3월) 7.1% → (4월) 6.1%

● 5월 수출은 소재 재고조정 및 신규 주문 감소, 완제품의 중국 외 지역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감소세 지속

- 소재류는 바이어 재고조정 및 신규 주문 감소로 위축되었으며, 완제품도 중국 외 다른 지역의 수요 둔화로 반등 폭 제한

- 대중국은 중화권 완제품 수요를 바탕으로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증가

- 대미국은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큰 폭 감소하며 전체 수출 감소 주도

* 섬유류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2025년 5월) 9.1(-11.2%) → (2026년 5월) 8.5(-6.6%)

* 5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 2.0(-9.5%), (중국) 1.1(2.9%), (미국) 0.9(-12.6%)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5	0.2	4.9	0.1	-1.3	-9.1	-3.5	-8.9	-
	생산(전기비)	-	-	1.2	2.5	-2.9	-2.9	-5.4	-8.9	-
	출하	-7.7	-2.1	0.8	-2.2	-1.8	-10.1	-1.6	-5.5	-
	재고	-5.1	-2.8	1.4	-2.8	-6.3	-3.9	-6.3	-9.1	-
	가동률	-2.9	-4.6	-0.2	-8.2	-4.5	-16.9	-2.2	-2.2	-
교역 동향	수출	-4.5	-6.1	-6.3	-6.4	-1.1	-4.7	-1.4	0.8	-6.6
	수입	-0.4	-2.2	-2.5	-2.8	1.6	3.1	0.3	1.1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8) 가전

□ 5월 수출, 미국 수요 부진으로 큰 폭 감소 지속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8.9% 감소하여 부진 심화

- 4월 수출 부진과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및 경제 불확실성이 생산 급감의 주요인
- 영상음향기기는 판매량 호조로 증가했으나, 생산 비중이 큰 생활가전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
- 생활가전 분야의 수출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 감소로 가동률은 5.2% 하락했고, 재고는 2.9%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1.7% 감소

- 대미국은 미국 관세 및 국내 생산 감소,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및 수요 부진으로 대형가전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대미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3월) -26.3% → (4월) -33.5% → (5월) -35.5%(1~25일)

- 대중국은 음성기록매체가 대폭 증가하면서 반등했으나 대형가전, 조명기기 등 타 품목이 부진

● 4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5.2% 감소

- 중동 사태 및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수입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

  * 최대 수입국인 대중국은 1% 감소했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부터도 각각 5.3%, 10.9%, 30.3% 및 16.7% 감소

- 수입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중국산은 가성비 제품 수요에 힘입어 수입 감소가 제한적이었고 일부 품목은 큰 폭으로 증가

  * 대중국 수입 증가 주요 품목 및 증가율: 냉장고 16.8%, 에어컨 19.4%, 비디오카메라 40.5%, 헤어드라이어 39.6%, 음향기기부품 30.1%, 전기밥솥 18.2%, 난방기기 19.4%, VCR 18.2%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2	-6.8	-0.4	-16.0	-10.4	-25.5	-5.6	-8.9	-
	생산(전기비)	-	-	1.9	-8.9	-0.7	-8.2	10.5	-2.7	-
	출하	-4.5	-3.1	0.4	-11.6	-12.1	-23.1	-9.2	-9.6	-
	재고	7.9	-0.1	4.6	-2.4	5.8	1.4	2.1	2.9	-
	가동률	3.1	-5.2	1.7	-11.2	-8.1	-23.2	-3.9	-5.2	-
교역 동향	수출	0.4	-8.8	-5.1	-8.7	-9.9	-20.3	-7.9	-20.0	-21.7
	수입	2.8	-1.1	2.6	-4.8	-0.6	-1.0	-6.2	-5.2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1)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9) 무선통신기기

□ 5월 수출, 전년동월비 12.6%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증가

- 5월 수출은 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12.6% 증가하였으나, 중량 기준 8.6% 감소
  - 국가·권역별로 대중국이 14.7% 증가했으나, 대아세안은 11.4% 감소
- 글로벌 스마트폰 신규 출하량이 메모리 가격 앙등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플래그십 제품군 출하량과 점유율은 견조
  - 저가형 스마트폰용 메모리(LPDDR4) 가격 앙등으로 주로 중국 브랜드의 출하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의 출하량 및 점유율이 상승

    * 카운터포인트(2026. 6)[1]에 따르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신규 출하량은 13.9% 감소한 10억 8,000만 대 수준으로 예상

1) Counterpoint Research(2026), "2026 Smartphone Shipments to Post Worst Annual Decline on Record as Memory Crisis and Geopolitical Shocks Converge", Jun. 1.

* 애플의 경우, 출하량이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출하량이 전년동기비 유사한 수준

* 샤오미는 1분기 출하량이 전년동기비 19% 감소했고, 150달러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트랜션의 출하량은 올해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22.9% 증가했고 가동률은 28.8% 상승하였으나, 출하는 2.5% 감소했고 재고가 65.3%나 크게 증가

- 이와 같은 평상시와 상반되는 현상은 현재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대비한 주요 기업의 재고 확보 영향인 것으로 추정

* 저가형 메모리의 점진적 생산 축소와 중단으로 인한 공급 단가 상승에 대비하여 추후 판매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물량을 비축[2)]

● 5월 수입은 스마트폰과 무선통신기기 부품 증가로 전년동월비 14.7% 증가

- 스마트폰이 26.6% 증가했고, 스마트폰 부품이 4.2% 증가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3	0.8	-10.4	-1.5	7.2	1.3	18.4	22.9	-
	생산(전기비)	-	-	-5.5	7.9	0.5	15.7	4.4	-2.0	-
	출하	4.5	-1.7	-10.8	-4.4	2.0	-3.7	12.6	-2.5	-
	재고	-18.8	23.0	0.8	23.0	31.0	25.7	31.0	65.3	-
	가동률	9.4	6.9	-9.1	4.7	11.2	7.1	25.8	28.8	-
교역 동향	수출	11.1	0.4	-12.7	2.6	40.1	12.2	43.4	11.6	12.6
	수입	-4.6	2.5	17.5	2.9	48.3	60.9	51.9	12.7	14.7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2) 아시아투데이(2026), "AI 데이터센터發 메모리 대란...중저가폰 재고 쌓는 삼성전자", 6월 21일.

* 반도체 특수로 국내 경기 호조 및 소비자 구매력이 크게 타격받지 않아 미국 애플 제품 수입과 국내 기업 플래그십 제품군의 역수입이 유지

*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레이더, 안테나는 전년동월비 각각 28.3%, 13.5% 및 46.4% 증가

(10) 반도체

□ 5월 수출,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상회

● 5월 수출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견조한 투자로 인해 전년동월비 169.4% 증가하여,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상회

-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HBM 등 고부가 제품이 증가
- 메모리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단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4	12.9	23.1	0.2	10.0	27.2	8.9	13.0	-
	생산(전기비)	-	-	7.3	-12.7	14.1	28.2	-9.0	3.1	-
	출하	14.5	13.3	21.7	1.4	13.8	30.3	7.8	20.8	-
	재고	-21.6	-34.7	-26.5	-34.5	-16.8	-7.7	-17.0	-13.3	-
	가동률	10.9	-2.2	0.6	-12.1	0.2	15.3	-0.7	-0.4	-
교역 동향	수출	43.9	22.2	26.5	36.0	139.1	160.6	151.4	173.5	169.4
	수입	15.8	4.9	4.1	1.7	25.7	19.1	34.8	53.2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3월 및 4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5월 수출은 추정치.

* DDR4 8Gb 고정가격 추이: (2026년 4월) 16달러 → (2026년 5월) 20달러

- 메모리반도체 수출 상승폭(255%)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6% 증가하여 견조한 흐름이 지속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3.0% 증가하였고 전월비로도 3.1% 증가하여 2월 대폭 증가 후 완만하게 생산 확대 중

- 생산은 2월에 급증한 이후 일부 조정이 나타났으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는 20.8% 증가하여 시장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0.4% 하락하며 2월 상승 이후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나, 기업들의 생산 확대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11) 디스플레이

□ 5월 수출, OLED 모바일 신제품 출시 대응 등으로 증가 전환

● 4월 생산은 OLED 모바일 신제품 출시 대응 등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출하 부진으로 재고는 큰 폭 확대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9%(전월비 0.7%) 증가했고, 가동률은 2.3% 상승
- 반면 출하는 4.6% 감소하고 재고는 10.8% 증가했는데, 이는 하반기 신제품 출시 대응을 위한 패널 사전 비축 성격으로 판단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9.4% 증가 전환

-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 세트기업 원가 부담 확대로 전방산업이 위축된 가운데에도, OLED 모바일 신제품 출시 대응 물량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

● 4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23.8% 증가했는데, 이는 베트남 소재 한국기업 공장 생산 OLED 모듈의 한국 경유 재수출 흐름이 반영된 결과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9	2.2	8.4	1.0	5.6	0.0	-3.3	1.9	-
	생산(전기비)	-	-	9.4	-1.9	2.0	-7.0	-1.3	0.7	-
	출하	4.5	-1.3	4.3	-1.9	2.6	-4.0	-4.8	-4.6	-
	재고	-1.5	7.8	-2.3	7.8	-0.1	-3.0	-0.4	10.8	-
	가동률	16.4	2.6	9.9	4.8	5.2	-0.9	-2.5	2.3	-
교역 동향	수출	0.9	-9.4	-5.8	-3.7	5.5	-4.2	-1.5	-2.7	9.4
	수입	5.7	-16.7	-10.3	-19.2	15.7	7.9	8.5	23.8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4

이슈 포커스

(1) 최근 세계 스마트폰산업 동향 분석

□ 2026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난과 부품가격 상승, 교체주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4% 감소할 전망

● 가트너(2026. 3)에 따르면, 2026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1억 2,900만 대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DC(2026. 5)도 2026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0억 9,000만 대를 기록하며 스마트폰 사상 최대 연간 감소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이는 AI 서버 수요 급증에 따른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 부족과 온디바이스 AI 기능 고도화에 따른 ASP 상승으로 인한 교체수요 위축 등에 기인
-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 부족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 생산설비가 가동되는 2027년 말~2028년경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메모리 공급 부족과 부품가격 상승으로 중저가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AI폰과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제품군은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전망

-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감소할 전망이나, AI 기능 고도화와 프리미엄화에 힘입어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는 중기적으로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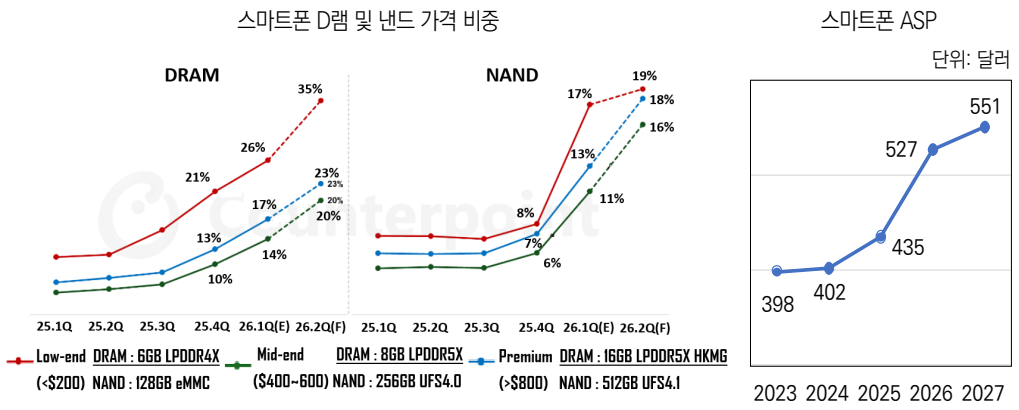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대, 억 달러,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CAGR (2024~2030)
전체(출하량)	1,226 (3.5)	1,247 (1.7)	1,129 (-9.5)	1,181 (4.6)	1,255 (6.3)	1,293 (3.0)	1,312 (1.5)	1.1
AI폰	261 (-)	387 (48.3)	519 (34.1)	703 (35.5)	844 (20.0)	905 (7.3)	954 (5.5)	24.1
폴더블폰	27 (31.0)	38 (42.8)	42 (9.6)	46 (9.9)	53 (16.2)	61 (13.5)	66 (9.4)	16.4
전체(매출액)	4,935 (5.8)	5,427 (10.0)	5,943 (9.5)	6,503 (9.4)	6,174 (-5.1)	6,455 (4.6)	6,704 (3.9)	5.2

자료: Gartner(2026. 3), Forecast: PCs, Tablets and Mobile Phones, Worldwide, 2024~2030.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가격 비중 및 스마트폰 ASP 추이



자료: Counterpoint Research(2026. 3), Gartner(2026. 3).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구도가 하드웨어·사양 중심에서 AI·생태계·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전환 중

● 생성형 AI, 에이전틱 AI가 스마트폰 혁신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면서 AI 프리미엄화와 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

- 카메라, 배터리 및 폴더블 등 하드웨어 영역에서 차별화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프리미엄 시장의 경쟁구도가 사양 중심에서 AI·생태계·SW 등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전환

되는 추세

- 생성형 AI가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면서 AI 기능이 사용자 경험 전반에 내재화되고 AI 에이전트 기반의 스마트폰 생태계도 형성 중
- 가트너는 2024~2028년 세계 AI 스마트폰 시장이 연평균 3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DC는 동기간 연평균 78.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한편, 1분기 애플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9%를 기록하며 2025년 4분기에 이어 1위를 차지

- 삼성은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며 2025년 3분기까지 1위를 유지했으나,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보급형 폰 판매 둔화 등에 따라 2위로 하락
- AI 스마트폰 시대에는 하드웨어 경쟁력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및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시장 주도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

단위: %

	2025					202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애플	17.6	15.9	17.1	24.8	19.0	19.9
삼성전자	19.3	19.6	19.5	17.1	18.8	19.2
샤오미	13.5	14.0	13.7	11.6	13.2	11.1
오포	8.1	8.2	8.5	7.2	8.0	7.5
비보	8.1	8.5	9.1	8.0	8.4	8.9
기타	33.4	33.7	32.0	31.3	32.6	33.5

자료: Gartner(2026. 5), Maret Share: PCs, Tablets and Smartphones, Worldwide, 1Q26.
주: 출하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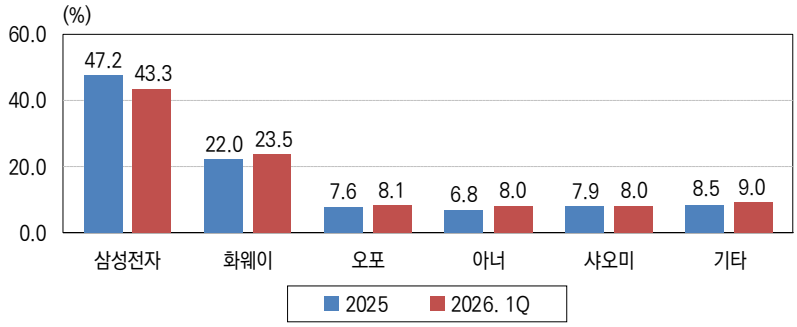
□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 시장은 AI 기능 고도화와 폼팩터 다변화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폴더블폰 시장은 2025년 기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3%에 불과하나, 2024~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6% 성장할 전망(가트너, 2026. 5)

- 금년 내 애플의 첫 폴더블폰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의 시장 진입 시 2026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카운터포인트, 2026. 3)
- 애플의 진입은 세계 폴더블폰 시장 성장과 산업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며, 시장 경쟁구도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세계 폴더블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



자료: Gartner(2026. 5).
주: 출하량 기준.

- 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제품 완성도 향상, 트리폴드 등 대화면 폴더블 수요 증가, AI 인터페이스 활용성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세계 폴더블폰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뒤를 이으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
  - 폴더블폰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나, AI 스마트폰 시대에 프리미엄폰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전망

김종기 | AI디지털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